

▶ 달러/원 주간 전망

• 수급 시소게임 속 상·하단 테스트... 美 부채한도, 한은 금통위

서울, 5월2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박스권 상·하단 저항력을 테스트하는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10-1,340원이다.

위안 약세에 편승해 지난주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상방 압력을 높이던 달러/원은 고점 네고에 더해 외환 당국의 촘촘한 관리로 추정되는 움직임과 외국인 주식 매집에 뒷걸음질 쳤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중국 경기회복 지연,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굵직한 재료들이 포진한 가운데 그때그때 시장 분위기 따라 환율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달러/원 상단은 이런저런 수급으로 막혔지만, 하단을 밀고 내려갈 만한 수급 한 방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후반부터 부각된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 지속 여부와 강도는 원화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주 발표될 미국의 5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지수를 비롯한 4월 PCE 물가 결과가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을 나타낼 예정인 가운데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변경 여부도 주목된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는 동결한 바 있다.

한편,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연이어 예정된 가운데 지난 5월 연준 회의록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수정 경제전망이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전망이 압도적인 가운데 경제전망 변화에 초점이 더 맞춰질 수 있다.

한편, 이달 20일 기준 수출입 잠정치와 무역수지 결과도 나온다.

아울러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와 4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중기자산배분안을 발표한다.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5월22일(월)

- ⊙ 관세청: 5.1~20일 수출입 동향
- ⊙ 한국은행: 임시국회 현안질의
- ⊙ 기획재정부: 기재위 전체회의 (10:00)
- ⊙ 금융감독원: 원장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14:00)

5월23일(화)

- ⊙ 한국은행: 2023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 한국은행: 2023년 1/4분기 가계신용(잠정) (12:00)
- ⊙ 금융감독원: '23.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12: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 (배포시)

5월24일(수)

- ⊙ 한국은행: 2023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 통계청: 2023년 3월 인구동향·4월 국내인구이동 (12:00)
- ⊙ KDI: KDI 글로벌경제리뷰(2023. 상반기) (12:00)
- ⊙ 한국은행: 2023년 4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 ⊙ 한국은행: 2023년 1/4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12:00)

5월25일(목)

- ⊙ 한국은행: 2023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09: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컨퍼런스 (09:30)
-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11:10)
- ⊙ 통계청·기획재정부: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2:00)
-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3.5월) (13:30)
- ⊙ 기획재정부: 2023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5월 발행실적 (17:00)

5월26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KDI-세계은행그룹, 출판 최종 보고회 개최 'Innovative Korea Report: 혁신과 기술을 활용한 경제개발 성공사례' (10:00)
-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일본은행 금융연구소 주최「2023 국제컨퍼런스」참석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5월22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5월22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YY	3월		9.8%
5월22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년물	5월		3.65%
5월22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년물	5월		4.30%
5월22일	23:00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	5월	-17.0	-17.5
5월23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SA	5월		49.5
5월23일	17:00	유로존	경상수지 NSA, EUR	3월		21.27B
5월23일	17:00	유로존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5월	46.2	45.8
5월23일	21:00	미국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4월		1.416M
5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5월		50.2
5월23일	23:00	미국	신축주택판매	4월	0.663M	0.683M
5월24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5월		-3
5월24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5월19일주간		214.9
5월25일	21:30	미국	GDP 수정치	1분기	1.1%	1.1%
5월25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5월15일주간		242k
5월25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4월		-0.19
5월25일	23:00	미국	잠정주택판매 MM	4월		-5.2%
5월26일	00:00	미국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5월		-21
5월26일	08:30	일본	도쿄 CPI	5월		3.5%
5월26일	21:30	미국	개인소득 MM	4월	0.4%	0.3%
5월26일	21:30	미국	소비 MM	4월	0.4%	0.0%
5월26일	21:30	미국	근원 PCE물가지수 YY	4월		4.6%
5월26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4월	-0.9%	3.2%
5월26일	21:30	미국	도매재고 잠정치	4월		0.0%
5월26일	21:30	미국	자동차 제외 소매재고 잠정치	4월		0.3%
5월26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5월		57.7
5월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TD	4월		-21.4%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5월22일(월)

- ⊙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미국가스협회 2023년 금융포럼 참석 (오후 9시30분)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리치몬드 연은 주최 컨퍼런스 참석 (오후 11시50분)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전미실물경제협회(NABE)/프랑스 중앙은행 주최 국제경제 심포지엄 참석 (23일 오전 0시5분)

5월23일(화)

- ⊙ 로리 로건 델러스 연방은행 총재, 리치몬드 연은 주최 컨퍼런스 환영사 (오후 10시)

5월24일(수)

- ⊙ 뉴질랜드 중앙은행 금리 결정 (오전 11시)
- ⊙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캘리포니아대 산타바바라 캠퍼스 컨퍼런스서 경제 전망 관련 연설 (25일 오전 1시10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ECB 창설 25주년 기념식 개회사 (25일 오전 2시45분)
-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5월2-3일 회의 의사록 공개 (25일 오전 3시)

5월25일(목)

- ⊙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로드아일랜드 커뮤니티컬리지에서 연설 (오후 9시30분)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버지니아주 남서부(SWVA) 경제포럼서 연설 (오후 10시50분)

5월26일(금)

- ⊙ 휴장국가: 홍콩

▶ 금주 세계 5대 이슈

⊙ 미국 PCE 물가지수

오는 26일 나올 미국 4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대다수 월가 전문가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미국의 3월 PCE 물가지수의 전월비 상승률은 0.1%로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에 앞서 24일 공개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5월2-3일 회의 의사록과 미국 부채한도 협상 진행 상황도 관심거리다.

⊙ 중국 대출우대금리 발표

중국 경제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위안 가치는 5개월 반 만의 최저치로 하락했고, 씨티의 중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통화 및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2일에는 중국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LPR)를 발표한다. 앞서 중국인민은행은 1년물 LPR을 3.65%, 5년물 LPR을 4.30%로 각각 8개월 연속 동결했다.

한편 26일로 예정된 도쿄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본은행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그에 앞서 24일 오전에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50%로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국 PMI

S&P글로벌의 미국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했고, 만약 23일 나올 5월 수치도 개선될 경우 연준 완화 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

지표가 부진해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국 증시 대형 기술주들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되는 영국과 유로존 종합 PMI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유럽 스톡스600지수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투자자들이 유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올해 들어 현재까지 10% 상승한 바 있다.

⊙ 영국 인플레이션

파운드르는 영란은행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올해 들어 현재까지 달러 대비 가장 강세를 보인 주요 통화다.

그러나 24일 발표될 영국의 4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전달보다 둔화될 경우 파운드 상승 모멘텀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영국의 4월 CPI 상승률이 전년비 8.3%로 전달의 10.1%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 그리스 총선

21일 그리스 총선에서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단독 집권당인 신민주주의당이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과반 의석 확보는 어려워 보인다.

주요 3당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립 정부 구성 가능성도 낮아 7월 초 2차 선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개혁 지속과 성장 촉진을 위해 현 정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고 시장은 그의 재선을 비교적 낙관하고 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칼럼)-중국발 훈풍 기대했던 원화, 역풍 몰아치자 다시 '흔들'

5월1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런저런 국제 이슈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온 원화가 이번에는 중국발 외풍에 또다시 약세 기조를 굳히고 있다.

작년 강달러라는 무차별적 공격에 심한 몸살을 앓았던 원화는 차츰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가 했지만, 예상 경로를 벗어난 중국 경제 때문에 또다시 약세 가속 페달을 밟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원화가 약달러 여건에서도 유독 약세를 보이자 외환 당국은 계절적 수급 요인인 외국인 주식 투자자 배당 역송금 수요를 지목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최식을 앞두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통화정책 전망 아래 4월 외국인 배당금 수급이 겹치면 원화 약세 압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 긴축 종료 신호를 보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5월 정책회의 결과에 달러/원은 잠시 미끄러지긴 했다. 하지만, 이후 환율은 쉽게 반등했고, 오늘 환율은 개장하자마자 연고점을 뚫고 올라갔다.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했지만,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가운데 연준발 호재는 원화에 꽤 많이 반영돼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통화스왑 체결로 묵직한 수급 안정 카드 하나는 소진됐다.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시장은 이 재료에 과하게 반응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달 한은은 연금과의 거래 개시를 알림과 동시에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원화 약세 흐름에 반전을 꾀하진 못했다.

올해 원화는 달러 대비 6% 가까이 절하돼 주요 20개국(G20) 통화 중 절하율 기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에 이어 4위다. 주요 아시아 통화 중에서는 단연 선두다.

▲ 중국 호재 기대 퇴색

역내 수급 척도인 무역수지는 4월 말까지 253억달러 적자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 규모가 3.7배에 달했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는 45억달러 적자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첫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1분기 흑자 규모인 149억달러에 비해 약 200억달러 악화한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원화 가치와 무역수지 간 상관계수는 0.86으로 상관성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대중국 수출은 지난 4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적자는 100억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중국은 시장이 기대하는 경기 정상화 속도에 못 미치는 지표 결과를 발표했고, 시장은 리오프닝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국 수출 부진 탈피와 외환 수급 완화에 꼭 필요한 외생변수인 중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원화는 이를 빌미로 약세 기조를 굳히려는 분위기다.

잠시 시계를 올해 초로 돌려 보자. 중국이 시장 예상보다 앞서 코로나 방역 해제를 선언하자 중국 리오프닝 기대에 환호하며 원화는 급강세를 보였다. 올해 1월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투자 자금은 약 50억달

러로 2020년 11월 이후 최대 순증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시그널 후폭풍에 따른 달러 강세에 달러/원은 빨리 되감겼지만, 이후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큰 한 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기대가 최근 들어 크게 퇴색되는 분위기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16일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 핵심인 중국의 IT 업종 부진을 주목했다. 중국의 4월 IT 업종 생산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판매믹 시기였던 2020년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IT 업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중국 수출과 IT 업종 비중이 높은 한국 수출에는 단연 부정적인 진단이다.

또한, 중국 정부의 내수 위주 회복과 다양한 업종에서 수입 대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구조적 변화도 고려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 우려 속 중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 추가 조치를 전망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중국과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이가 위안화 약세를 부추긴다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다 할 호재를 찾을 수 없는 원화는 뻣뻣한 외환 수급 사정만 부각되며 최근 약세 흐름을 굳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외 투자자가 위안화 대리 통화로 원화를 적극 활용한다면 원화는 위안화와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약세 압력을 더 키울 여지도 있다. 위안/원은 1월 이후 계속 오름세다.

작년처럼 강달러라는 거센 파고에 전 세계가 함께 흔들렸던 상황과는 다르다. 국가별로 다른 경기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중국의 직접적인 경제 영향권에 있는 한국 입장을 고려하면 원화는 더 애를 먹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연초 최상의 성적을 거둔 통화로 원화를 꼽은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말이다.

(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칼럼)-지는 중국, 뜨는 일본

올란도, 5월18일 (로이터) -

아시아의 주요 경제 및 금융 거물인 중국과 일본의 운명이 날이 갈수록 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롱 일본, 숏 중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거시적, 상대적 가치 거래일 것이다.

중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활력을 잃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도 식어가고 있다. 반면, 일본의 성장세는 가속화되고 있고 일본 주요 주가지수는 33년 만의 최고치 부근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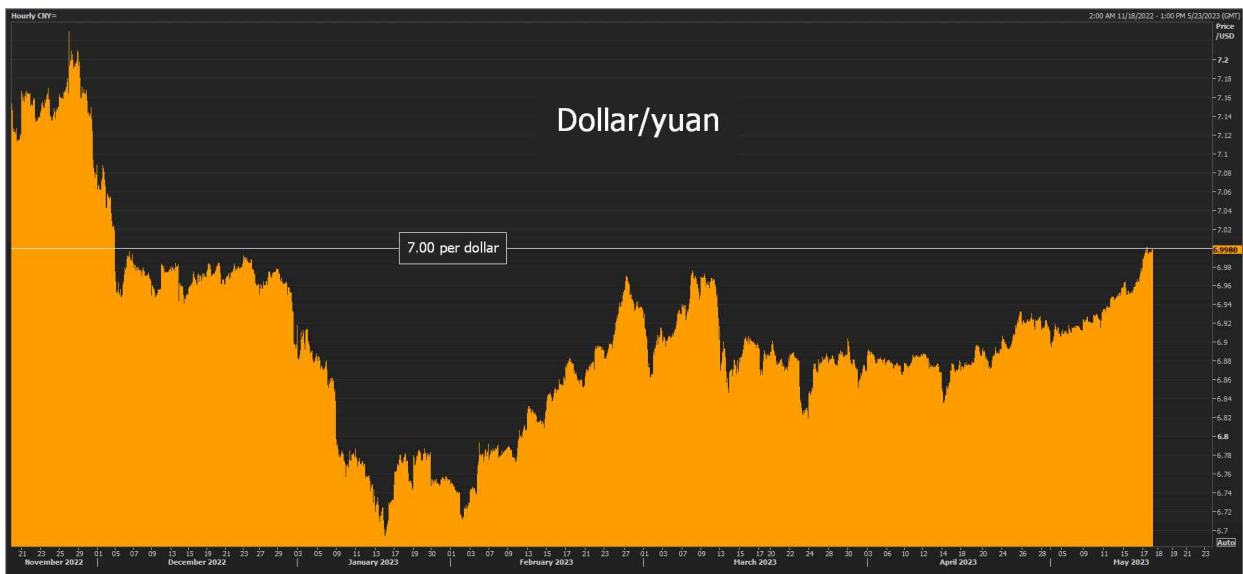
현 추세 중 일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1년 넘게 중국 채권을 매도해 왔고, 미-중 관계 악화는 투자자들에게 오랜 기간 부담이었다. 그러나 금주 발표된 경제지표가 크게 엇갈리면서 이 같은 추세에 큰 관심이 쏠리게 됐다.

먼저 중국의 4월 투자 및 소매판매는 이코노미스트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고,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망치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율은 3월의 절반 수준도 안 됐다.

전주 4월 인플레이션과 수입 지표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16일 2년 만의 최대폭이자, 역대 가장 가파른 수준의 낙폭을 기록했다.

성장 전망은 빠른 속도로 어두워졌다.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들은 17일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5.6%에서 5.3%로 하향 조정했다.

같은 날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위안에 대한 전망치를 수정했고, 이제는 올해 위안 가치가 달러 대비 7.30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15년 만의 최저치 부근이다.



◆ 토픽스

한편, 17일 공개된 일본 공식 수치에 따르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비 0.4%, 연율 1.6%로 각각 전망치 대비 4배,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금주 일본의 닛케이225 주가지수는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심리적으로 중요한 수준인 30,0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며 마감했고, 현재는 1990년에 기록한 수준 대비 몇 퍼센트 이내에 위치해 있다.

토픽스지수의 경우 16일 3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은 5주 동안 일본 주식을 순매수했지만, 누적 자금흐름은 지난 여름 수준으로 돌아갔다.

추가 매수 여지가 충분하다.

애널리스트들은 지난주 노트에서 "시간 범위를 넓혀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당한 차이로 일본 주식을 순매도했다. 우리는 장기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여전히 가볍다고 생각한다"라며 "일본 주식의 상방 리스크가 있다"라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최근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도 참가자 11%가 일본 주식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는 등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H: Despite recent inflows, cumulative foreign flows are only back to last summer level

Cash and futures equity transactions by investor type, cumulative since November 2012 (¥ tn)



Source: Japan Exchange Group

Chart 45: Net % AA Say they are overweight Japanese Equities

Net% of FMS investors overweight Japanese equities



Source: BofA Global Fund Manager Survey, Datastream

◆ 중국 위기?

이제 중국과 비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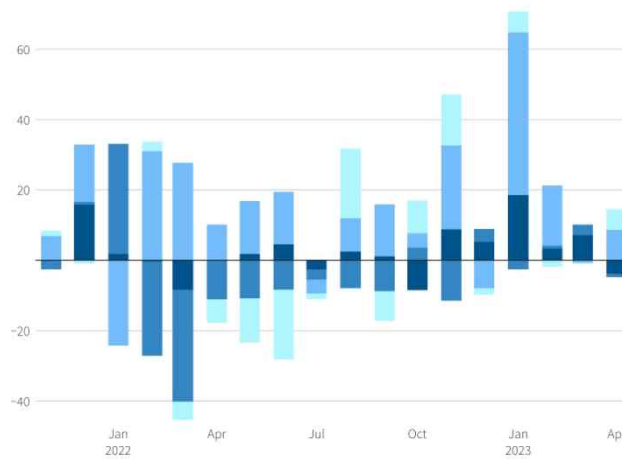
물론, 올해 초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300억달러에 달했지만, 대부분 코로나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시장이 급등했던 1월에 집중했다.

그러나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이러한 낙관론이 사라졌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들은 중국 주식을 약 40억달러어치 매도하며 6개월 만의 첫 자금 유출을 기록했다.

EM portfolios see inflows in April but China weighs

Non-resident emerging market flows by destination and asset class

● China equity ● China debt ● Ex-China debt ● Ex-China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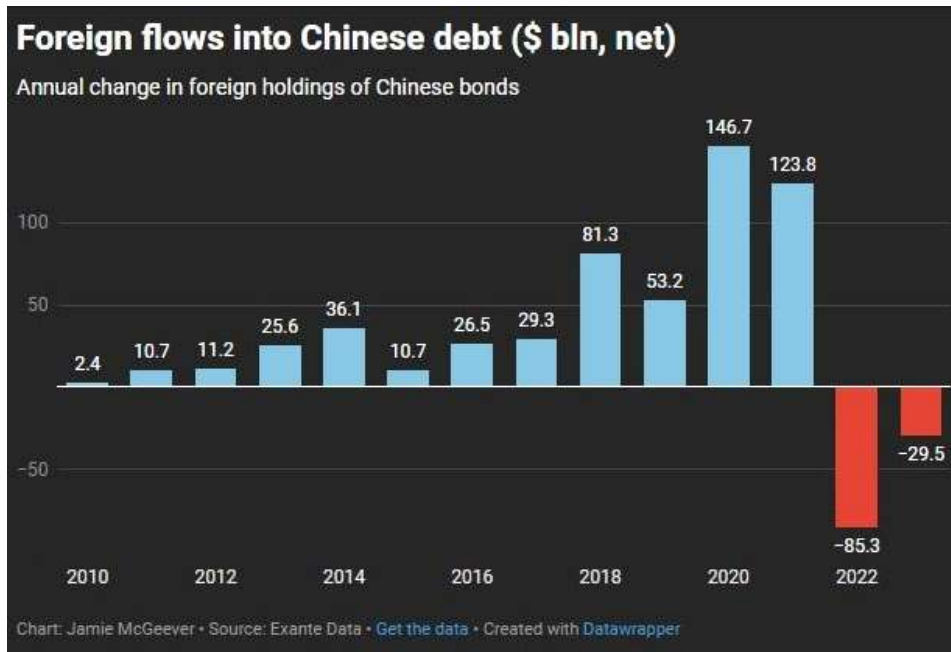


Note: IIF estimates subject to revision; values in billions of U.S. dollars
Source: IIF | Graphic: @RodrigoCampos | Updated May 8, 2023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월간 펀드매니저 조사에 나타난 1월 가장 많았던 거래는 중국 주식에 대한 "롱"이었다. 투자자들은 중국 주식에 대한 순 비중확대 포지션을 축소했지만, 여전히 편안한 수준의 순 비중확대를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추가로 확대할 여지가 있다면, 중국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더 줄일 여지도 있다.

한편, 채권 투자자들은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지난 2월에는 10년간 이어졌던 중국 채권에 대한 강한 자금 유입이 역전됐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행(BOJ)과 중국인민은행의 향후 움직임도 이러한 추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BOJ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곧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을 해체하기 시작한다면, 엔 가치가 오르고 일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 다시 국내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반면, 중국인민은행은 취약한 성장 전망과 대만, 우크라이나, 기술 스파이 활동 및 제재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할 때 중국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데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다뤄질 예정이며, 공동 성명에는 중국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표현이 얼마나 직접적 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일본과 독일은 주요 대중국 수출국이기에 중국 투자 규제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일 수 있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 · 국제 금융시장 변동폭

- 외환: 원화 역내 +0.59%, 유로화 -0.42%, 엔화 -1.62%, 위안화 역내 -0.90%, 달러지수 +0.52%
- 국내 주가: 코스피 +2.52%, 코스닥 +2.35%
- 미국 주가: 다우존스 +0.38%, 나스닥 +3.04%, S&P500 +1.65%, 러셀2000 +1.89%
- 국내 국고채(레퍼니티브 호가): 3년 +12.1 bps, 10년 +14.9 bps, 최종 3/10년 스프레드 +7.5 bps
- 미국 국채: 2년 +28.5 bps, 10년 +22.9 bps, 최종 2/10년 스프레드 -59.7 bps
- 원자재: 원유 선물(WTI) +2.16%, 금 선물 -1.72%, 레퍼니티브/코어커머디티CRB지수 +1.73%